

## 엔진 성능 관리를 위한 중요한 습관, 예열과 후열



겨울에는 차량 출발 전 시동을 미리 걸어 뒤야 차를 오래 탈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1boon.kakao.com/sfdirect)가 겨울철 자동차 예열과 후열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 ■ 겨울철 자동차 예열, 왜 중요한가?

겨울에는 자동차 예열이 반드시 필요하다. 겨울철에 자동차를 예열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 내부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기온이 낮으면 오일이 굳어져 시동 직후 엔진 내의 각 부분으로 빠르게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로 차량이 출발하면 엔진 마

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예열을 통해 오일이 엔진 내로 잘 스며들어 엔진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 ■ 여름철에도 자동차 예열이 필요할까?

여름철에도 자동차 예열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주차를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이 모두 바닥으로 내려앉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동을 걸 때 엔진 윗부분에 오일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를 바로 출발하는 것을 '드라이 스타트(Dry start)' 라고 하는데 엔진 마모의 70%가이 구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계절에 상관없이 예열을 해주는 것이 엔진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운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 ■ 예열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자동차 예열 시간은 보통 30초 내외가 적당하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출시된 차들은 엔진을 비롯한 차량 내부 부품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돼 1분 이상 예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연식이 오래된 차종은 시동 직후 급격히 올라간 RPM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출발할 것을 권장한다.

※ 지나친 예열은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 ■ 예열만큼 중요한 습관, 후열!

예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후열이다. 후열은 차량 운행 중에 발생된 엔진의 열을 식히는 과정을 말한다. 주행 직후는 엔진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인데, 이때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냉각장치의 작동도 멈추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남아있는 열에 의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일의 연소와 고착화를 유발한다. 이는 결국 엔진의 실린더 내부 압력 저하, 밸브 밀폐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엔진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목적지 도착 3분 전에는 서행하여 서서히 엔진의 열을 식혀주고, 도착 후에는 시동을 바로 끄지 않고 예열과 마찬가지로 30초 내외로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예열하고 후열하는 것은 자동차 성능 유지를 위해 아주 좋은 습관이다. 방법도 매우 쉽고 간단하다. 아직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차량 운행 전후로 내 차를 위한 30초의 여유를 가져보자.

## 우리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 어떤 게 좋을까?

아이가 있거나 가족이 많으면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만을 위한 차가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차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차를 '패밀리카' 라고 부른다.

패밀리카 선택 시에는 우선 자주 차량에 탑승할 가족 인원수에 맞는 규모의 차량 중에서, 공간 활용성 및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 ■ 높은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 'SUV'

패밀리카를 고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SUV이다. 같은 크기의 세단과 비교했을 때 차체가 높아 공간 활용성이 매우 좋다. 트렁크 공간도 넓어 짐의 크기나 모양에서 자유롭고, 차량 내부 공간의 높이가 높아 카시트 설치나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편리하다.

다만, 세단에 비해 승차감이 떨어지고, 차량의 높

이가 높아 어린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 ■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 주행, '세단'

승차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패밀리카를 선택할 때도 세단을 포기할 수 없다. 세단은 차체가 낮아 어린 아이들도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 정차 시 차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피로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SUV에 비해 트렁크 적재 공간이 좁아 아쉬움이 따른다.

### ■ 다가족을 위한 '미니밴'

가족이 많다면 미니밴이 제격이다. SUV보다도 넓



은 승차 공간으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다. 공간 활용성 면에서는 단연 최고이다.

### ■ 최고의 공간 활용 '왜건'

왜건은 패밀리카로서의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 왜건의 특성상 트렁크가 크고 넓

어서 공간 활용성 면에서는 SUV보다 낫다. 그러나, 짐차 같은 길쭉한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은 편이다.

패밀리카 선택에 정답은 없다. 가족마다 인원 수, 즐기는 취미 등 다양한 개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